

호오산잔

불사조의 산

봉우리 3 개가 연결된 호오산잔은 기타다케산 북동쪽 5km 에 위치합니다. 3 개의 봉우리는 북에서 남으로 지조타케산(2,764m), 칸논다케산(2,841m), 야쿠시다케산(2,780m)가 위치합니다. 얼핏 보면 이 세개의 봉우리는 일년 내내 흰 눈에 덮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산정상은 파스텔톤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호오(鳳凰)’는 한국어로 ‘봉황’이라고 하는 불사조를 의미하는 일본어입니다. 봉황은 동아시아 전통에서 평화, 번영, 태평성대의 시대에 나타나서 고난의 시대에 사라진다는 성스러운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에 어울리듯 세 봉우리의 이름 모두 종교적입니다. 어린이와 여행객을 지키는 수호신인 지장, 자애의 보살을 나타내는 관음, 중생의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약사를 의미합니다.

지조타케산의 정상은 오벨리스크(태양 신앙의 상징으로 끝이 뾰족한 피라미드형 첨탑을 의미)라고 불리는 인상깊은 20m 높이의 뾰족한 바위 첨탑이 있습니다. 이곳을 최초로 등반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레버랜드 월터 웨스턴(1861-1940)으로 영국 성공회 선교사이자 열정적인 영국 등산가였습니다. 웨스턴은 1896 년 그가 등반하며 모험한 이야기를 ‘일본 알프스 등산과 체험’이라는 책으로 엮어 출판했습니다. 웨스턴이 오기 전까지 일본에 있던 사람들은 나무를 베거나 종교적 수양을 위한 실질적인 목적 이외에 산을 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웨스턴은 일본의 근대 레크리에이션 등산의 아버지로 불립니다.